코로나 시대 안전 휴가…스테이케이션 대세

〈Stay+vacation〉

가족·연인 등 소규모 한 곳 머무르는 홈캉스·호캉스 부상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도 타인과 접촉 없어 각광

'코로나19' 2차 유행이 여름휴가 트렌드도 확 바꾸어 놓았다. '언택트'(비대면)가 대세인 가운데 한 곳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이 부상하고, 다수가 함께하기보단 가족과 연인 등 소규모 단위로 휴가를 계획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14일 한국관광공사가 국민 1만9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 시 여행 동반자로 가족을 99.6%(중복응답), 친구·연인 27.3%로 꼽았다. 지난 2018년 가족을 여행 동반자가 선택했던 비율(49.4%)의 두배 수준이다.

반면 친목단체·모임을 선택한 응답자는 0.1%, 직장동료를 선택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여행패턴의 변화와 관련, 응답자들은 '유명관광지보다 숨겨진 여행지 선호', '실내 보다는 야외를 선호', '자연경관 감상 선호'한다고 답했다.

직장인 정유나(여·29)씨는 이번 여름휴가는 여행보단 시부모님 댁이 있는 여수에서 보낼 예정이다.

정씨는 "해외는 나갈 수 없어서 남편과 국내여행을 고려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시댁인 여수에서 시부모님과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낼 계획이지만 가까운 관광지는 들려볼 예정이다. 하지만 관광객이 많은 해상케이블카나 다중이용시설인 아쿠아리움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계획에서 제외했다. 대신 오동도와 향일암, 고소동 벽화마을 등 한적하면서 개방된 관광지를 들를 생각이다.

초등학생 두 딸을 둔 박정훈(45)씨 역시 이번 여름휴가지로 단독으로 물놀이와 취사가 가능한 풀빌라를 고려하고 있다.

평소 친구가족들과 휴가를 보내왔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이번 휴가만큼은 아내와 두 딸 가족들만 함께하기로 했다.

박씨는 "여수 예술랜드 부근에있는 풀빌라는 예약해 놓은 상태"라며 "어디 가지 않고 풀빌라 안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종합숙박 예약서비스 '여기어때'에 따르면 올해 7~8월에 예약된 4박 5일 이상 숙박(6월 말 기준)이 지난해 동기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여행 수요가 35%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장기 여행객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3박 4일 여행객은 26%, 2박 3일 여행객은 32%, 1박 2일 여행객도 28% 늘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캠핑도 인기다. 이 같은 추세에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캠핑트렁크 광산점 대표 정환철씨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과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가게를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언택트 휴가도 애견인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해남군과 한 여행 업체가 기획한 반려견과 애견인이 함께 캠핑을 즐기는 '도기 캠프'의 62개 상품이 완판되기도 했다.

여행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적한 자연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액티비티 중심 여행이 대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기·기계자동화 등 3개 학과

동강대 내년부터 야간 운영

동강대학교가 내년부터 전기과·기계자동화과·호텔조리영양학부를 야간에 운영한다. 14일 동강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들 과는 신입생을 각각 15명씩 뽑아 오후 6시 이후 강의를 하는 야간학과로 운영한다.

동강대는 또한 3년제인 임상병리학과의 학사과정(4년제·정원 20명)을 올해부터 신설해 야간에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야간학과로 운영되는 건축토목조경학부를 내년부터 건축과와 건설환경과(토목 전공)로 분리하고 각각 23명과 22명을 선발한다. 더불어 기존 야간 학과를 운영해 온 소방안전과, 보육복지과, 사회복지과 등도 총 90여 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석·박사 과정 신입생 화상면접

광주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근 호심관 4층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2020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과정 신입생모집' 면접을 비대면 화상면접(ZOOM)으로 진행했다.

〈광주대 제공〉

전남 학교 절반 육박…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 박차

행·재정적 지원에 교육 연수 강화

지역특성 살린 학교 만들기 총력

학령 인구 감소로 전남지역 학생수가 줄면서 5~6년 안에 '작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모두 382개교(분교 55개교 포함)로, 전체 초·중·고 877개교의 43.6%에 이른다. 지난해 42.8%(878개교 중 377개교)보다 0.8%, 학교수로는 5개교 증가한 수치다.

신입생은 물론 남은 재학생마저 사라져 폐교하는 곳까지 감안하면 작은 학교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가 문 닫으면 지역 사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와 절박함은 다양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재정적 지원은 기본이고, 학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사례 공유와 머리를 맞댄 워크숍까지 다양하다.

우선 '작은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연간 30시간 이상 정규 교과과정 등과 연결해 운영하는 모델학교를 5년 동안 100곳을 지정해 각각 3년간 맞춤형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원도심학교 특색프로그램도 50여개 학교에서 운영중이다.

작은 학교 연구회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작은 학교나 원도심 학교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심있는 교육전문직과 교원 등으로 작은 학교 연구분과 24명, 원도심 학교 연구분과 17명으로 구성됐다. 작은 학교 연구회가 '참 좋은 작은 학교'를 창출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게 도 교육청의 기본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하순, 80여 일 만에 첫 등교수업이 이뤄질 당시 고3과 더불어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우선 등교시킨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육계의 한 전문가는 "신입생이 없을 경우 재학생 감소로 이어지다 결국엔 문닫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지역특성을 살린 작은 학교 모델을 만들고, 인구 유입과 귀농·귀촌, 공동 학구와 통합학교 운영 등 다각적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때"라고 조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고1 무상교육 2학기부터 시행

1인당 81만원 부담 경감

광주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내년으로 예정했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로써 광주지역 고교의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 학생은 법정면제자 등 기존 면제 및 지원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학생 1만 926명이며, 소요 예산은 88억여원이다.

홍양춘 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교육청 사업 계획 가운데 축소·일몰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교육 조기 실현으로 고교 1학년 학생은 오는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1인당 81만여원의 학부모 부담을 절감하게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2학기도 '대면+원격' 혼합수업

코로나19 호전 돼도 병행

전남대학교가 이번 2학기에는 '원격+대면' 혼합 수업 방식을 기본으로 학사를 운영한다.

전남대는 14일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혼합수업을 기본 수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이날 대면수업이 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혼합수업을 기본방식으로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 곧바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학기 단계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2학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 ▲일일 확진자 발생이 10명 미만일 때는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50명 미만일 때는 혼합수업을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제한적 대면수업을 진행하되, 단과대학이나 교무처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하루 100명을 넘는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2학기 평가는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 재량으로 온라인 시험, 과제물 등 비대면 평가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성적평가는 절대평가 등 성적평가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2학기 시작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대 박복재 교무처장은 "전남대학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라고 여기고, 안정된 학사운영 속에 첨단학습기법 등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걸맞은 고등교육시스템 도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코로나19 방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손소독제 8500개 전달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고객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역물품인 소독용 스프레이를 전달한다. 지난 7일부터 양일간 전남대후문상가번영회, 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등 지역 소상공인 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활동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북구는 오는 17일까지 상가번영회, 시장 상인회, 업종별 협회 등 총 30개 단체와 협회에 소독용 스프레이 8500여 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방역물품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나설 예정이다.

북구는 이와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조치와 고위험 시설 지도·점검 등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지원 위한 프로그램인 '창업학교'도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